4 교육

서울 소통간담회, 환경개선 안건 이어져 노후공간 보수, 실내 공기질 개선 등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지난 7일, 서울캠 소통간담회가 법과대학 401호에서 열렸다.

총학생회장단, 단과대 및 중앙동 아리연합회(중동연) 학생회장단, 후 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장, 학 생소수자인권위원회장이 학생 대표 로 참석했다. 대학 측에선 서울 학무 부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단과대 학장과 행정실장이 참석했다. 소통 간담회 1부는 대학 재정 설명회, 2부 는 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자유 질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1부 대학 재정 설명회에서는 대· 내외 재무환경과 2023학년도 결산 현황을 설명했다. 기획조정처 김도 훈 부처장은 "작년 기준 우리학교 결 산 집행 규모는 약 4970억 원이었다" 며 "등록금 의존율은 약 75%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캠퍼스 사업단 김경수 단장은 스마트캠퍼스 성과를 공유했다. "2단계 핵심은 통합 앱 및 모바일학생증 구축인데, 통합 앱은 다음 주부터 시험에 들어가 2학기부터 정식사용예정"이라고 말했다.

총학은 다전공 순번대기제와 학생지원센터 위치 이전을 요청했다. 조규영(미디어학 2021) 회장은 "더 많은 학생이 다전공을 신청할 수 있 도록 다전공 순번대기제와 다전공 지원 관련 세부 정보 공개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다전공 순번대기제는 다전공 신청에서 밀린 학생에게 예



학생 안건은 환경 개선이 주를 이뤘다. 공간 문제, 노후 공간 보수, 공기 개선,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등이다.

(사진=하시언 기자)

비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에 교무처 김성수 처장은 "다전공 티오가 남는 경우도 많아 고민해봐야할 것"이라며 "다전공 지원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실과 학생지원센터의 지리적 차이로 학생지원센터를 학생회관 1층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무관리처 손용기 처장은 "현재 학생회관 1층에 부서가 너무

많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학생지원 센터는 청운관에 있고, 총학생회실 은 학생회관에 있다.

학생 안건은 환경 개선이 주를 이 뤘다. 공간 문제, 노후 공간 보수, 공 기 개선,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등이

문과대, 이과대, 한의대는 노후 공 간 보수를 요구했다. 문과대 비상대 책위원회(비대위) 김도현(영어영문 2022) 위원장은 "화장실 역류 문제 와 4층에선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스페이스21 건물에 대해 한의대 박건희(한의학 2021) 회장은 "누수 문제로 인해 타일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과대 허윤진(물리학 2021) 회장은 "올해 입학식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간 문제는 미대, 약대가 제기했

다. 미대 학생회 김나연(회화 2022) 회장은 "실습실과 휴식 공간이 부족 하다"고 말했다.

약대 학생회 성지창(약학 2022) 회장은 "열람실이 없어 따로 공부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대 임동순(약학) 학장은 "공간관 리시스템이 내년부터 만들어질 것" 이라며 "공간 부족은 인지 중이며 교 수님과 상의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비스홀과 스페이스21관 공기 개선 요청도 있었다. 경영대 조현우 (경영학 2021) 회장은 "오비스홀 지하 1층은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 질이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의대박 회장은 "스페이스 21 건물 지하 1층 해부학실습실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오비스홀은 학군단 문을 개방해야지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21관 또한 "지하 냄새 해결을 위해서는 옥상으로이를 배출해야 하는데, 이 역시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해부학실습실의경우 위치 변경 논의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통간담회를 마치며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은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회가되었다"며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단계적 계획 수립 역시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